북스

Books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시대를 건너는 법 서경식 지음

조국이나 사는 곳 어디서든 쉽게 '이방인'이 돼버리는 디아스포라(Diaspora·이산(離散)민족)의 삶은 어떤 것일까. 또 이들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일까. 특히 격동기의 근·현대사를 겪은 조국을 둔 재외한국인들에게 코끝이 시큰한 향수(鄕愁)나 끝없는 애정 등과 같은 단순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다.

재일조선인 2세로 살아온 서경식(56) 도쿄케이자이대 현대법학부 교수에게 한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이자 1970년대 있었던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사건'으로 두 형(서승·서준식)을 10년 넘게 감옥에 가둔 나라이다. 조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지닌 디아스포라로, 양심을 잃지 않은 지식인으로 살아온 서 교수의 책 두 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20세기를 온몸으로 살아간 49인의 초상'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제국주의와 전쟁, 파시즘 등 폭력에 맞섰던 예술가, 학자, 정치인 등을 다룬 이야기다. 지난 2000년 일본에서 출간된 '20세기 천 명의 인물'에 저자가 실었던 글들을 모았다.

저자는 20세기를 '난민의 세기'로 규정한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수없이 자행된 식민지 수탈 등으로 점철된 20세기는 끊임없이 난민을 만들어냈고, 편견과 차별을 확대·재생산했다. 저자가 만난 사람들은 이같은 광기의 흐름을 순응하지 않고 저항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삶이야 말로 20세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하에서 민중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1898~1936),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배와 차별에 맞서 서구 보편주의의 위선을 폭로하고 전 인류의 해방을 꿈꾸었던 혁명가 프란츠 파농(1925~1961) 등 잘 알려진 이들 외에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전쟁에 맨몸으로 맞섰거나 반전,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일본인들도 다뤘다. 저자는 이 책이 "(글을 썼던) 1990년대라는 시대에, 일본이라는 장소에서, 나라는 한 사람의 재일조선인이 새긴 저항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돌베개·1만3천원〉

'시대를 건너는 법'은 저자가 지난 2005년 5월부터 2년간 한겨레신문에 '서경식의 심야통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칼럼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연재를 진행했던 첫 1년은 일본에서 보냈지만, 나머지 1년은 성공회대 연구 교수 자격으로 난생 처음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일본의 한 시사프로에서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뒤 책을 쓴 유대계 이탈리아인 프리모 레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레비의 증언이 "미래의 평화를 위해 불러낸 고통과 굴욕의 기억"이었듯 종군위안부 등 동아시아 증언자들의 증언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익명의 시청자가 "강한 증오심을 느꼈으며, '타국인을 배제하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고 엽서를 보냈다고 한다.

저자는 일본의 '양민'들이 대부분 이같은 망각의 늪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를린에서 봤던 '걸림돌'을 떠올린다. 바닥 붙은 금속제에 유대인 이름이 새겨진 '걸림돌'은 나치와 홀로코스트를 잊어선 안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저자는 스스로 '걸림돌'이 돼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한다. '기억의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말이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교과서 한국문학' 2차분 20권 출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서울대 교수진이 간추린 '교과서 한국문학' 시리즈 2차분 20권이 동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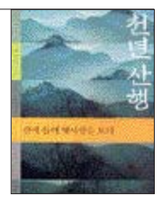
'객지', '한씨 연대기', 오래된 정원', '손님' 등 황석영의 작품과 '도둑 견습', '달맞이꽃', '홍어', '즐거운 우리 집' 등 김주영의 대표작이 10편씩 묶였다. 논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편집과 심도 있는 해설을 덧붙였다.

방민호(문학평론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사회, 윤리, 역사, 철학 등 주제에 맞게 작품과 관련한 논술 문제를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로 세상 엿보기', '알고 가자, 논술거리', '논술 워크북' 등 코너를 마련해 즐거운 독서를 돕는다.

〈휴이넘·각 권 8천500원〉

명산 20곳서 성현 20명을 만나다

천년산행 박원식 지음



강진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까지 만덕산 허리춤을 800m 쯤 가로지르는 산길은 매혹의 등산로다. 조릿대·소나무·동백나무·후박나무·차나무·비자나무가 강진만의 짭쪼름한 해풍과 함께 빚어내는 바람 소리 청량한 오솔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그저 그런 산책로는 아니다. 400년 전 당대의 최고 지성 다산 정약용이 당대 최고의 선사인 백련사의 혜장을 만나러 가던 학문과 사상의 '실크로드'다.

199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모래의 섬'이 당선된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중인 저자 박원식이 다산의 자취를 따라 가본 산행길이기도 하다.

20년 가까이 자연과 문화에 대한 글을 써왔던 그는 지난 2년간 내변산의 눈 덮인 쌍선봉에서 조선 명기(名妓) 이매창과 시를 주고받고, 해남 두륜산에선 초의와 나물 도시락을 나눠먹었다. 청량산에서 퇴계를 만나고, 무등산에선 고경명과 서석대의 기상을 함께 노래한다.

'천년산행'은 이처럼 성현을 만나고 대화하며 구름처럼 바람처럼 산길을 걷는 가운데 나온 산행기록이다. 산세의 아름다움이나 산행의 즐거움은 물론 그 산을 오르던 옛 사람들의 숨결을 오롯이 살려냈다. 고대의 온달과 최치원에서부터 조선의 김시습·이매창·정약용·김삿갓, 근세의 경허·만공·강증산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저자는 이들의 삶과 사상, 작품 등을 산행길 중간 중간에 풀어내며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곁들인다.

옛 사람들의 삶과 사상은 다채롭지만, 산을 바라보는 마음은 신기하게도 한데로 모인다.

'생각건대 언제나 의연한 것은 산이며, 모였다 흩어지기 쉬운 것은 인간이다.'(고경명) '뒤로 물러나 산야에 묻히는 게 평생의 숙원이 아니겠는가.'(이황)

그 옛날에도 요즘처럼 인간세상이 소음 가득한 감옥이어서 선인들은 산으로 갔던 걸까.그저 산을 닮고서 싶어서, 산 아니고는 별반 갈 곳이 없어서였을까. 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억새 가득한 가을산 초입에 들어서 있을 듯싶다. 본문에 소개된 산 20곳에 대한 산행지도와 산행정보 등을 담은 부록 '산행 가이드'를 잊지 말고 챙기시라.

〈크리에디트·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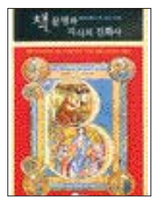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새책

▲세계의 명산 위대한 등정=영국인 최초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 기록을 가진 스티븐 베너블스가 산에 대한 도전이 담긴 기록들을 한데 모았다.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극, 아시아 등 7개 대륙 34개 산에서 펼쳐진 35개의 등정사례가 실렸다. 〈예담·4만8천원〉

▲보리밟기 쿠체=제18회 쓰보타 조지 문학상(2003년) 수상작으로 이시이 신지의 장편소설이다. 목소리를 잃은 동생의 노트를 통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소녀와 한 가지에 어리석을 정도로 몰입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상상력과 감수성을 잃어버린 어른들을 자극한다. 〈해냄·1만1천원〉

▲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중·고등학교 현직 사회교사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장의 법 교육에 한계를 느끼고 쓴 책. 호주제 판례, 음주 측정 판례 등 39가지 판례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논쟁을 다시 새기게 한다. 〈휴머니스트·1만7천원〉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니콜 하워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책을 지목한다. 그리고 책의 역사를 기록했다. 책이 어떻게 생겨나 수 천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파헤친다. 〈플래닛미디어·1만8천원〉

▲일본문명의 77가지 열쇠=좋든 싫든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줬고, 주고 있다.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비교사회학자, 민속학자 등 전문가들이 일본문명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코드 77가지를 뽑았다. 현상에 대한 에세이식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전문적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황해·1만5천원〉

▲사랑한다 우리말=강진 출신 작가 장승욱씨가 순우리말 3천100여개를 정리했다. 저자는 2003년 한글문화연대가 제정한 '우리말글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겨운 토박이말의 원래 쓰임과 가치, 언어 속에 담긴 참 의미 등을 맛깔스런 글 솜씨로 풀어냈다. 〈하늘연못·1만3천원〉

▲침이 고인다=지난 2005년 최연소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해 문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80년대생' 소설가 김애란씨의 두번째 소설집. 표제작은 이효석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에 후보작으로 올랐고, '도도한 생활'은 '2007년 올해의 좋은 소설'에 선정됐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아담의 배꼽=전문 칼럼니스트 마이클 심스의 인체 탐구서. 피부, 털, 얼굴, 눈, 귀, 코 등 눈에 보이는 인체의 외관을 12가지로 나누고 이를 주제로 접근한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시선을 잃지 않으면서 몸에 대한 여러 태도와 관점들이 문화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파헤쳤다. 〈이레·2만2천원〉

▲마르크스의 유령들=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1930~2004)가 1993년 출간한 화제작. 저자는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밀어내려는 마르크스의 유령(사상)이 억압과 착취, 차별에 맞서는 해방운동의 대명사로 어디선가 부르는 목소리가 있는 한 망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이북스·1만9천원〉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0월 15일
	CAD	2개월	10월 22일
	MOS(Master)	2개월	10월 15일
	정보통신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 1,2	5주	매월 초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세무公務員 1800여명 올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9級 공무원 완전封備
강좌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검축직 물리학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 10월 1일 주·야 (종합/단과)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수시접수가능)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10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범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 DEET 기본이론과정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 227-8088